

## 유럽의 첫번째 신자

사도행전 16 : 11~15

**이 명 직** 목사님(1890. 12. 2~1973. 3. 30)은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본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전도의 동기가 사람의 운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2장에서는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13장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내심으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16장에 보면 바울은 계속하여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허락치 아니하

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곧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압블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함으로써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 I. 강변에서의 기도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 지나 안식일을 맞아 예배당을 찾아나섰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 집만 되면 회당을 건축하였는데, 아마도 이곳에는 유대인의 이주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으로 회당

을 건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내를 떠나 한적하고 아름다운 강변으로 나아가서 경건한 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다닌 것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전도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변 기도회에서 세 가지의 소원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의 소원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찾는 루디아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부흥(復興)의 특징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역자의 열심과 영혼의 요구로써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됩니다.

## II. 신앙과 가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은 바울은 강변기도회에서 엔게디 동산의 교백화 한 송이와 같이 눈에 띄게 경건하고, 신앙이 독실하게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 두아디라 성에서 이주해 와서 자주 장사하는 유대

인 여자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인의 생활을 살펴보면, ①자주(웃감) 장사라 한 것을 보면, 큰 무역상은 아닌 것 같고, 작은 행상(行商)인 것 같습니다. ②또한 “저와 그 집이 나 세례를 받고”라고 한 것을 보면, 가족이 꽤 있었던 것같이 보여집니다. ③그리고 남편이 있었다면 웅당 언급되었을 것인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남편을 잃은 미망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으며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넉넉지 못한 가난한 생활에 구애 받지 않은 독실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 III. 안식일 준수(謹守)

유대인이 특별히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시 루디아의 형편을 보면, 본국에서는 부득이 율법에 의지하여 안식일을 지켰으나 타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외국에 와서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였겠습니까.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날에 겪을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날은 안식일(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일요일)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의식이 아니라 심령이니, 구약의 안식일보다 신약의 주일의 우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 외에 불건을 팔고 사며, 평일처럼 사무를 그대로 보는 것은 경건치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면서 물질적 이익만을 구하지 말고, 주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심령에 은혜를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는 것은 잠으로 귀한 일입니다.

#### IV. 전가족이 구원

루디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율법의 표준으로 말한다면 의인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어머니로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함께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 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쉬워도 가족들에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위가 깨끗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 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온가족이 신앙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V. 교역자 접대

루디아가 구원받은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역자와 복음을 하는 사람들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루디아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전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손대 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를 강권하여 접대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복음을

대접함ियो, 그리스도를 대접함ियो, 그리스도의 종 된 교역자를 대접함입니다. 이는 육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써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은 교역자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교역자는 누구를 위하여 살며,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저희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히 13 : 17)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고 대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의 생활비나 도와주는 것을 마치 절인을 구제하는 것같이 하여 받은 이로 안심과 즐거움이 없게 한다면 이는 구원을 귀히 여기는 신자의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 Ⅶ. 핍박의 용사

루디아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빌립보 성의 큰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마귀들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마귀를 내쫓은 것이 원인이 되어 곧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막 구원을 받아 기쁨에 넘쳐 떠들며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청하여 자기의 집에 유숙하게 했던 루디아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혹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니 구원은 고사하고 이제 죽기가 심중판구로구나 하고 위험을 느꼈을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루디아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두 사도가 옥중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을 보면(40-), 저는 결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얻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험할 날도 가까워지고, 신앙의 싸움을 할 날도 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 Ⅶ. 교회의 동량(棟梁)

루디아의 구원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옥사장의 회개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날에도 확실히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의 토대가 된다면, 그 교회는 비가 오

고 바람이 불며 홍수가 나도 무너질  
 염려 전혀 없고, 나무나 풀이나 짐과  
 같이 불타 없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아디아 교회는 분명  
 히,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성립된  
 다음에 그의 고향인 두아디아에 돌아  
 가서, 자신의 받은바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설립된 줄로 생각이 됩니  
 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에서나, 두아디아 교회에서 그 구원  
 으로 말미암아 동량(棟梁)과 같은 존  
 재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의 최초 신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

〈본 설교는 이명적목사 설교집 제2집에 수록  
 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 목사께서 현대  
 적인 어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호 주 Sydney School of Theology 학생 모집

1. 호주정부에서 인가된 신학대학
2. 호주 및 구미 신학자로 구성된 교수진
3.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에서 마음껏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음
4. 모든 교과과정은 영어이며 어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영어코스 있음
5. 한국인은 유학생으로 가족동반하여 입국함(학생visa로)
6. 성결교단 가족우대 및 남태평양과 세계선교 진출협조 및 선교훈련실(기숙사-있음)
7. 여름과 겨울 계절선교대학(1, 2, 3주간씩)(한국의 겨울은 호주여름)
8. 교과과정 : 신학 각분야에 Diploma, Bachelor, Master, Dr. of Ministry or Dr. of Missiology.
9. 보다 상대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학장 : 윤수한목사(서울신대56기)  
 (시드니벨앨성결교회목사)

Dr. Soo Han Yoon,  
 17 Metropolitan Road,  
 Enmore, Sydney, NSW 2042  
 Australia

전화 (001612) 519-2775 (학교) / 744-5656 (집)

팩스 (001612) 557-3498